

■ 뉴욕 CPX 컨소시엄의 Morchand 센터 방문보고서

이화여대 홍부외과학/의학교육학 한 재 진

1. 뉴욕 CPX 컨소시엄의 역사와 현황

뉴욕 CPX 컨소시엄은 1991년도에 뉴욕의 3개 의과 대학이 함께 모여 결성되었다.(MSSM,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and New York Medical College) 이후 뉴욕시 안의 5개 의과대학(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Health Science 센터 SUNY at Stony Brook, and SUNY Health Science 센터 at Brooklyn)이 합류하여 1995년도에 New York City Consortium for Clinical Competence라는 이름으로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래 의과대학들과 병원들은 서로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융합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 컨소시엄은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병원에 자리한 Morchand 센터에서 각 참여 대학 학생들의 임상 실기 실습 및 평가 등을 시행하며 본 센터의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정식 Curriculum에 편성되어있다. Morchand 센터는 컨소시엄 소속 대학 교수들의 참여를 통하여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SP 훈련 및 운영,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한다. 각 대학의 해당 교수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임상 실기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컨소시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임상 술기의 바람직한 표준을 확립하여 의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 Morchand 센터의 역사와 현황

뉴욕 CPX 컨소시엄과 함께 시작한 Morchand 센터의 역사는 미국 의학 임상 실기 교육의 역사와 일치하는데 매년 1300명의 4학년 의과대학생의 임상 실기 교육이 이루어져 미국 전체 의과 대학생의 10%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의 8개 컨소시엄 대학 중에서 3개의 대학이 자체적인 임상 실기 훈련 센터를 만들어 나감에 따라 현재는 컨소시엄에 소속된 5개 의과 대학의 학생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점차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소속 대학 병원뿐 아니라 뉴욕 시 인근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의 임상 실기 교육 및 간호사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 센터의 1년 예산은 120만불 정도이다. 전체의 1/3 정도는 학생들의 시험이 배정되어 있고, 그 외에 PGY1의 실기시험을 6개 증례로 이 센터에서 시행하고, 비서의 역할, 제약회사 직원의 교육 등 외부 용역을 맡아 표준화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 현재로서는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 이외

에 병원이나 의대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고 센터가 자급자족해야 한다. 운영 방식은 어떤 과정의 담당자가 센터를 이용하여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할 때 센터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규모와 일정을 정한 다음 이에 합당한 SP 교육용 대본을 프로그램 시행 몇 주 전에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의 담당자가 SP 훈련에 알맞게 대본을 수정하고 이에 적당한 SP와 계약을 한 다음 프로그램 시행일에 맞추어 훈련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에 checklist나 동영상 등 프로그램의 결과를 과정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신약의 효과를 광고하기 위해서 SP의 개발을 의뢰한 다거나 장기 이식팀이 장기 기증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뇌사 환자의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장기기증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뉴욕에 위치한 많은 회사의 비서와 같이 손님 접대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이들이 손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 등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Morchand 센터에서 운영하는 SP들은 뉴욕 시의 풍성한 문화 인프라가 기여하는 바가 큰 데 무려 1,000명의 직업 배우 경력의 SP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통상 150 여명의 전문 연기자 SP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있다. SP 비용은 대개 시간 당 20-25불을 주고 있다. 교육용 SP 운영 시에는 SP가 2명이 동시에 들어가 하나는 연기를 하고 하나는 채점을 하여 나중에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다. Morchand 센터의 현 책임자는 Erica Friedman, M.D (Associate Dean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이며 수 명의 staff이 7개

의 시뮬레이션 방과 한 개의 비디오 모니터링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룸은 좌석과 화면을 극장식으로 배열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모든 센터의 운영 일정 조정과 checklist 등이 전산화 되어 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었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시험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개발한 7개의 증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년 전에 증례를 바꾸고 아직은 그대로 사용한다. 시험의 시행은 2학년을 마친 후, 3학년을 마친 후 두 번에 걸쳐서 본다. 그리고 의과 대학 학생들은 4학년 초부터 시작하여 졸업 전까지는 USMLE step 2 CS를 합격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개 2일에 걸쳐 시험을 보며 6시간 이상을 시험을 본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 동안 모니터 룸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진료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몇 증례가 끝나면 바로 학생들과 1시간 정도의 토의 시간을 통하여 진료의 과정에 대해 상호 교류식의 피드백을 시행한다. 시험의 결과 표준분포에 의해 20% lower percentile에 속하면 교수가 비디오를 검토하여 다시 점검을 한다. 학생들은 당일 증례에서 2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중심의학적 접근을 하고 다음 날 토론을 하게 된다. 아울러 1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다음날 토론을 한다. 따라서 3일간에 걸쳐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셈이다. 한 증례 당 환자 면담은 20-25분을 시행하다가 USMLE의 시험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느라 현재는 한 스테이션 당 17분의 면담으로 시행하고 있다.